

# 의대 증원·무전공 도입·N수생 증가... 변수 많은 입시될 듯

## 교육계가 전망한 2025학년도 수능

킬러문항 배제에도 적잖은 부담 고3생 지난해보다 2만여명 증가 상위권 늘고 내신 합격선 높아질 듯 무전공 선발로 학과별 모집정원 변화 지역인재전형 적극 공략 등 필요

오는 11월 14일 수능을 치러야하는 고 3학생들은 입시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변수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전망됐다.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대학의 무전공 선발 도입, 재학생·N수생 증가 등 고려해야 할 변수가 많다.

종로학원은 28일 “의대정원 확대, 무전공 도입 등 현재까지도 2025학년도 입학 전형계획이 대학별로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유동적인 상황이라서 매우 어려운 입시가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올해 수능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킬러문항이 배제되지만 수험생들에게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수능에서 예상과 달리 수험생들의 체감 난도가 매우 높아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영어과목은 지난해 1등급 비율이 4.7%로 가장 어려운 시험으로 꼽혔다. 역시 국어·수학도 2022학년도 통합수능 도입 이래 가장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평가됐다.

학원가에서는 “국어, 수학의 경우 지난해 매우 어렵게 출제된 것보다 더 어렵게 출제방향 잡기에는 부담스러운 상황일 것”이라는 조심스런 관측을 내놓고 있다.

사실상 출제경향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결국, 수험생들은 수능을 겨냥해 학습 수준을 어디에 맞춰야 할지 가능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올해 고 3 학생수가 41만5183명으로 지난해(39만4940명)보다 2만243명 증가한 점도 주목된다.



**올해 첫 연합학력평가** 2024년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시행된 28일 광주시 동구 광주고 학생들이 시험을 보고 있다. 이번 평가에는 전국 17개 시도 고교 1~3학년 학생 125만명이 응시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다. 학생수가 늘어 내신, 수능 상위권 학생이 증가할 수 있고 학교 내신 합격선도 지난해보다 높아질 수 있다. 종로학원은 산술적으로 1등급이 지난해 대비 810명, 2등급은 2227명, 3등급은 4656명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는 의대정원이 2000명 증가함에 따라 재수생이 지난해보다 늘어날 경우 수능 고득점자는 더 많아질 수 있다. 킬러문항 배제가 시행된 지난해 2024학년도 재수생 숫자가 이례적으로 치솟은 바 있다. 수능 과목별 유·불리에 따른 선택과목 추이도 변수 가운데 하나다. 올해 수능에서도 국어 영역의 언어와 매체, 수학의 미적분 응시생이 더욱 늘어날 수 있다. 통상 표

준점수가 다른 과목에 비해 높게 나오기 때문이다. 표준점수는 수험생의 원점수가 평균 성적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보여주는 점수다. 통상 시험이 어려워 평균이 떨어지면 표준점수 최고점은 상승하고, 시험이 쉬워 평균이 올라가면 표준점수 최고점은 하락한다. 실제 국어 언어와 매체 선택 비중은 2022학년도 30.0%, 2023학년도 35.1%, 2024학년도 40.2%로 상승 추세다. 수학 미적분의 경우 2022학년도 39.7%, 2023학년도 45.4%, 2024학년도 51.0%로 올랐다. 광주시교육청은 “의대 정원 증원으로 상위권 졸업생들이 의대 진학을 위해 수능에 응시할 것으로 예상돼, 고 3 재학생은 수사에서 수능최저기준 충족과 정시에서 수능등급 확보를 위해 촘촘한 계획을

세워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대입에서 지역인재전형 적극 공략, 내신성적 관리, 수능최저기준 충족, 수시모집 지원전략이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수시와 정시에 공통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수능시험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전공 입학 확대에 따른 학과별 모집정원 변화도 주목 대상이다. 수도권 주요대학과 국립대학은 학생들의 전공 선택권 확대와 융합형 인재 양성을 내건 교육부의 무전공 입학 확대 방침에 따라 무전공 또는 자유전공 입학선 확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무전공 선발로 인한 학과별 모집 정원 변화, 의대 모집 정원 확대에 따른 합격선 변동 정도, 반수생 유입 정도 등 입시 불확실성이 매우 커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2025학년도 수능 주요 일정

2024년 3월 28일(목)	시행기본계획 발표
7월 1일(월)	시행세부계획 공고
8월 22일(목)~9월 6일(금)	원서 교부, 접수 및 변경
11월 14일(목)	수능
11월 14일(목)~11월 18일(월)	문제 및 정답이의신청
11월 26일(화)	정답 확정
11월 15일(목)~12월 6일(금)	채점
12월 6일(금)	성적 통지

연말뉴스 자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부

## 2025학년도 수능 출제 범위

국어	공통과목 75% (독서·문학) + 선택과목 25% 내외 (화법과작문·언어와매체 중 택1)
수학 (단답형 30% 포함)	공통과목 75% (수학Ⅰ·수학Ⅱ) + 선택과목 25% 내외 (확률과통계·미적분·기하 중 택1)
영어	절대평가
사회·과학탐구	총 17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목 선택
직업탐구	총 6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목 선택 → 2개 과목 응시: 공통과목(성공적인 직업생활) + 계열별 선택과목 5개 중 택1 → 1개 과목 응시: 계열별 선택과목 5개 중 택1
한국사	필수 과목, 절대평가
제2외국어/한문	9개 과목 중 택1, 절대평가

연말뉴스 자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부

## 사건 인사이트

## 과속 운전하다 동승자 다치게 했다면?

### 광주지법 “운전자, 건보공단이 낸 치료비 등 1억여원 물어줘야”

과속하다 사고를 내 동승자를 다치게 한 운전자가 건강보험공단에 동승자 치료비를 물어주게 됐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 8일 오후 7시 20분께 동승자를 태우고 전주시 한 대교를 건너던 중 사고가 났다.

도로의 제한 속도는 시속 80km였지만 A씨는 시속 168km로 운전하다 가드레일과 옹벽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 차량에 동승했던 B씨가 ‘결장 손상’ 등의 부상을 입었다.

사고 후 B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 지정 요양기관인 대학병원 등에서 국민건강보험 비

용으로 치료를 받았다.

공단은 요양 급여비 명목으로 지난해 6월 1억여원, 11월 650여만원을 진료비로 지급했다.

하지만, 공단은 B씨 진료비와 치료비로 부담한 총 1억 1100만여원을 A씨에게 청구하는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은 A씨가 전방·좌우를 철저히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고 안전하게 조작해 사고를 방지해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과속을 해 피해자에게 부상을 입혔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공단은 “B씨가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아 발생한 보험 급여 비용을 공단이 부담했다”면서 국민건강보험법 대위청구권을 근거로 “공단이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신 취득해 A씨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광주지법 민사4단독(부장판사 이재석)은 공단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소송에서 공단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에게 1억 1000여만원의 돈을 공단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분양권 판다” 속여 지인 등에 4억여원 가로채

### 광주서부경찰, 50대 검거

아파트 분양권을 미끼로 지인 등으로부터 수억원의 돈을 뜯어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서부경찰은 아파트 분양권을 팔겠다고 수억원을 받은 뒤 잠적한 A(57)씨를 사기, 사문서위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지인 등 4명에게 광주시 서구의 한 아파트 84㎡(34평) 분양권을 판매한다고 속여 총 4억 3000만 원을 뜯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실제 분양권을 갖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에게는 건설사 법인 명의로 입금확인서를 보내

주고 “분양이 시작되면 분양권을 줄 것”이라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지난해 6월 분양이 시작되고 난 뒤에도 A씨가 연락을 받지 않고 분양권을 양도하지 않자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돈은 전부 생활비로 써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동종전과가 있다는 점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A씨가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씨에게 건설사 법인 명의를 빌려 준 인물의 범행 가담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함께하는 100년농협

##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크** **뱅크**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뚝!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서비스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뚝! 바로 바로 확인까지 뚝!

NHCard **은행**  
VISA

올바른 POINT UP 카드  
국내·외 전 가맹점에서 무제한 포인트 적립! 전 가맹점 최대%적립 + 생활밀착형 가맹점 추가 적립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국제공항 라운지 무료이용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2201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10만원(임시800만원) 한도 실손보장(해당특약가입시) 월5만원으로 만기시 80%환급 (매월변동가능. 공시이용 2022년 1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햇살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362-8400~6 FAX. 062)362-8407

용산지점 062)526-0222~3  
치평지점 062)381-8212~3  
쌍촌지점 062)381-6551~2  
외정지점 062)372-0421~3

유동지점 062)512-1984~5  
동림지점 062)513-8521~3  
운암지점 062)527-3295~6  
운천지점 062)371-2772~3

유덕지점 062)373-3235~6  
동운지점 062)528-2640~2  
배틀지점 062)381-1971~2  
상무동지점 062)372-3741~2

운암벽산지점 062)529-5335~6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로컬푸드(시청) 062)364-8400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